

함께 가는 길

3월



함 * 께 * 가 * 는 * 길 * 3 월 호

짜 임 새

일하며 생각하며 / 2

영유아보육법 개정의 한길로

장미경

기획 / 5

한국 여성단체연합의 '92평가와 '93 계획

편집부

아동교육 / 13

소풍도 교육이다

아동교육분과

개특위 / 22

'93 보사부 보육사업지침의 문제이해

영보법개정특별위원회

활동총괄 / 32

3.8 여성의 날 기념행사 각 지역에서 열려

글마당 / 35

아이들아, 너희를 생각하며

김향진

소식과 소식 / 37

우리들의 목소리 / 38

김선자, 박경자, 최홍국, 김현선

편집부에서 / 43

탁아소 백과 / 4 분만축진 자궁수축제 사용규제 신문속의 세상이 보인다 / 12 모으면 의학백과가 되는 건강정보 새책 소개 / 21 알아봅시다 / 34 도시가계소득증가, 교육비 급증 자라는 아이, 건강한 교사 / 36 싸움이 잦은 아이 지탁연 벼룩시장 / 42

☆☆포지 사진 : 지난 3월 8일 서울 YWCA에서 있었던 제9회 한국여성대회에서, 성폭력특별법 제정을 위한 모의법정의 한 장면

일하며 생각하며

영유아보육법 개정의 한길로!

장미경 (탁아연구가, 본회 탁아정책연구부 부장)

변함없이 찾아들 꽃소식을 눈 앞에 두고 있는 요즈음, 우리는 하루가 바쁘게 속속 발표되는 새 정부의 포부와 그를 뒷받침하는 인선내용에 관한 뉴스를 접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생각들을 가진 국민들의 마음속에는 나름대로의 갖가지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교차되는 것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지탁연을 중심으로 결속되어 있는 우리의 경우에도 새 정부의 탁아정책에 관한 한 적어도 공약 사항은 지켜지겠지 하는 기대와 지금까지와 비교해서 특별히 달라질 것이 있을까 하는 우려가 앞서고 있음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막연한 기대와 우려를 토로하기전에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눈에 보이게, 보이지 않게 치솟아 온 물가고 속에서 서민의 생활은 상대적으로 더욱 더 어려운 지경에 이르고 있고 생활고 때문에 일해야만 하는 어머니들의 상황은 시간제 노동 등 고용형태의 다양화로 인해 더욱 악화일로에 있다는 엄연한 현실입니다. 새 정부의 구호는 여전히 '더욱 허리띠를 졸라매고 더욱 열심히 일하자'는 것이지만, 우리네 부모들의 허리는 이미 졸라맬대로 매어져 있으며 돌보아 줄 사람이 없어 방치되고 있는 수 많은 어린이들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 구호가 진정으로 '새로운'개혁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탁연에서는 올해의 중점사업으로 현재 껍질뿐인 영유아 보육법의 개정운동을 채택하였고, 3월중으로 예정되어 있는 공청회를 시작으로 하여 계속적인 법개정 청원작업을 추진하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1991년 1월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되던 당시 그 겨울의 미묘한 당혹스러움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고도

의 산업화가 진행됨에 따라 심각해져 가는 탁아문제가 어느 특수한 가정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보편적인 문제임을 통감하면서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의 올바르고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그에 걸맞는 입법안을 제시하고 이 법안의 제정을 촉구하던 중에, 급작스레 발의된 여당측의 안이 속성으로 통과되었던 것입니다. 그토록 바라던 탁아법의 제정에 당혹스럽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뜻밖에도 이 법에는 실질적으로 정부의 책임있는 대책이 담겨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우리는 즉각 올바른 내용을 담고 있지 못한 영유아보육법이라면 거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고, 지금까지 법개정을 주장해왔으며 특히 올해에는 이를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로 법개정운동을 중점사업으로 설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현재의 영유아보육법이 안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국가의 책임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국가의 책임을 적극적으로 명시하지 않음으로써 여전히 탁아문제가 특수한 가정의 문제라는 구시대적 한계를 안고 있어서, 오늘날 이미 보편적인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탁아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극히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한가지 지적해야 할 중요한 문제는 현행법에는 보육주체들의 민주적 참여가 보장되어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영유아보육법이 참다운 복지법으로서의 면모를 갖추려면 그 실행에 있어서 직접 관련되는 주체들의 살아있는 의견이 수렴되고 반영될 수 있는 법이어야 한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보육위원회에 관한 규정 등을 보면 종래의 관주도 형식성을 전혀 벗어나고 있지 못함을 쉽게 알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기업의 부담을 유치할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이라든가 나아가 보육자체의 질을 제고하는 방법의 문제 등 간과할 수 없는 여러 문제들을 현행 영유아보육법은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탁아문제란 우리사회의 산업화에 따른 사회문제이므로 사회적으로 그 대책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으며, 개인들의 힘만으로 해결 될 수 없다면 국가의 장래를 위해 바로 국가가 적극적으로 그 책임을 맡겠다는 의식입니다. 그러나 이번 복지예산 중에서 탁아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퇴보하고 있음을 확인할 때에도 알 수 있듯이, 우리가 부딪혀야 할 벽은 무척 높고 단단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로, 서로 격려하는 뭉쳐진 힘으로 한발한발 나아가다 보면 조금씩 희망의 빛이 보인다는 것을 확인해 왔습니

다.

영유아보육법에 바람직한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개정운동에 더 커진 힘으로 함께 참여합시다.

저희 정책연구부에서는 이론적 충실화를 위한 한 작업으로 가족과 복지국가를 중심으로 한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면서 법개정의 내용과 관련지어 우리가 지향해야할 탁아이념을 구체적으로 모색하려고 합니다. 힘에 부치고 여러가지 여건의 어려움이 있지만 일선에서 열심히 생활하시는 선생님들에게서 불어오는 따뜻한 사랑의 훈기를 함께 느끼면서 서로 힘을 내자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가장 구체적이고도 분명한 대안은 바로 우리가 처한 상황 자체에서 나올 것이라는 생각으로 여러 선생님들의 따듯한 충고가 있으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함께 가는 길! 함께 열심히 살아봅시다.

분만촉진 자궁수축제 사용규제

일본 후생성은 분만을 촉진하기 위해 임산부들이 사용하는 자궁수축제 (진통촉진제) 사용량을 대폭 억제키로 했다. 후생성은 이들 자궁수축제는 투여량이 많거나 과거 제왕절개로 분만을 한 경험이 있는 임산부 등이 다량으로 사용할 경우 자궁파열을 비롯, 태아가 사 등을 일으킬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이들 자궁수축제는 모두 몸안에 있는 호르몬을 화학적으로 합성하여 만든 것으로 임산부의 태반기능 불완전

탁아소 백과

등에 사용되는 것은 물론 의료적인 측면에서나 임산부의 가정사정 등에 따라 출산일을 조정하는 '계획 분만' 등에 투여되고 있다. 한편 일본의 한 시민단체 조사에 따르면 지난 70년부터 91년까지 일본 국내에서 자궁수축제 사용으로 일어난 의료사고는 모두 76건으로 30명의 갓난아이와 12명의 어머니가 사망했으며 34명의 어린이가 뇌성마비, 간질 등의 증세를 보인 것으로 집계됐다. (92.11.14 새건강 신문)

기획

한국 여성단체연합 '92사업평가와 '93사업계획

편집부

이번호에는 본회가 소속되어 있는 여성단체 연합의 92년도 사업평가와 93년 사업 계획을 심도깊게 다루어 봅니다. 그간 회원단체이면서도 실제 사업에는 그리 결합력이 높지 않았으나 이번 기회를 통해 회원 여러분이 여성단체연합 활동에 많은 관심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하며 실제 지역활동에서도 여성단체 연합의 사업 내용을 실정에 맞게 받아낼 수 있었으면 합니다. (편집자 주)

1) 여연의 '92년도 사업방향과 활동

여연(한국여성단체연합)은 여성운동 세력간의 조직적 연대를 이루어 나가며 사회의 민주화와 자주화, 여성해방을 쟁취함을 목적으로 이에 찬동하는 여성단체의 연합조직이다. 현재 약 20여개로 이루어져 있다. 여연은 중점사업으로 92년을 '성폭력 추방의 해'로 정하여 성폭력은 사회적 범죄이며 인권문제임을 사회적인 여론을 불러 일으키고, 성폭력이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 제도상의 문제점들을 여러 형식을 통해 사회적으로 각인시킨다는 목표를 갖고 '성폭력 특별법' 제정운동을 전개하여 여성의 인권증진에 기여하고 전체 여성운동의 역량을 결집하고, 사회단체와 결합을 도모해 여성운동의 조직적 외역을 넓혀가기로 사업목표를 세웠다.

그 구체적인 활동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폭력 대책에 관한 특별법'이라는 제하의 성폭력 특별법 시안을 마련하고 입법청원을 하였다 (7월 31일). 또 성폭력 특별법 제정과 관련한 공개토론

회(5월 28일, 300여명 참가)를 열었다.

둘째, 정당을 초청하여 '성폭력 특별법안, 무엇이 쟁점인가'라는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가졌고 성폭력 특위에서 '성폭력 추방과 올바른 성폭력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동결의 대회 및 가두행진' (9월 23일)을 벌였다.

셋째, 성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공개질의서 작성을 하여(6월 30일) 각 정당 대표와 정부 각 부처, 정부 제 2장관에게 송부하였고 서명운동을 하였으며 홍보를 위해 자료집과 소책자, 전단, 호루라기 불펜을 만들어 배포, 판매하였다.

넷째, '성폭력 특별법안에 대한 입법청문회 개최 촉구'를 위한 서한과 '성폭력 특별법 제정 연기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면담과 기자회견을 통해 성특위 조직내용과 그 참가단체, 사업계획, 정부의 성폭력 종합대책에 대한 공개질의서 발표, 성폭력특위가 마련한 '성폭력 대책에 관한 특별법'을 발표하였고 내부회의를 통해 성폭력 개념 및 범주, 설정을 위한 토론회등을 가졌다.

〈성과와 과제〉

그 성과와 과제로 목표설정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성폭력 범죄에 대한 사회적 대응책으로 법과 제도적 차원의 대책이 수립되어야 함을 주장해왔고, 이러한 노력의 구체적인 표현으로 성폭력 특별법 제정을 촉구해 왔다.

92년 한해동안 이러한 노력은 우리나라의 성폭력 범죄의 실상과 사회적 규범의 이중성을 폭로하고, 성폭력 피해자와 일반 대중에게 성폭력 범죄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범죄이자 인권문제로 인식하도록 하는 중요한 전환점을 형성했다. 또한 성폭력 추방과 성폭력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대중의 요구를 사회적으로 증폭시킨 한 해였다고 평가할 만하다. 그결과 정부가 정부차원의 '성폭력 종합 대책안'을 마련하도록 하였고 각 정당에서도 성폭력 특별법 마련을 위한 구체안을 마련하는 등 여성계의 요구와 주장이 주요정책으로 반영되는 성과를 낳았다.

기획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성폭력 추방운동을 전개하기에 앞서 성폭력 추방운동의 방향 설정과 성폭력의 개념 및 범주 설정을 위하여 내부 정책토론회를 열어 그동안 여성에게 가해지는 모든 폭력을 성폭력으로 규정하는 등 다소 애매모호하게 규정되어진 성폭력의 개념 및 범주를 명확히 하고, 현장성과 실효성이 있는 성폭력 특별법을 마련하는 기초적인 틀을 제공하였다. 이후 공개토론회, 정당 초

청 공개토론회, 공동결의대회, 공개질의서 발표, 성명서 발표 등의 프로그램은 성폭력 특별법 제정을 비롯한 성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대안과 구체적 방침, 실천지침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성폭력 추방 상징물인 호루라기 불펜과 홍보소책자를 대량으로 제작, 배포한 것은 대중과의 접촉국면을 넓히고, 성폭력 추방에 대한 대중의 요구를 사회적으로 보다 증폭시키는데 대단히 많은 기여를 하였다.

운영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여성, 청소년, 장애인을 대상으로 성폭력 대책활동을 벌여왔던 단체들을 중심으로 참가단체를 구성하여 각 분야별 현장경험에 기초한 성폭력 특별법안 마련 및 대안을 제시할 수 있었다. 또한 성폭력 대책활동을 벌여오지는 않았지만 성폭력 사안의 심각성에 비추어 볼 때 보다 광범위한 연대활동을 벌일 필요가 있어 28개 민간사회단체를 망라하여 개최한 '성폭력 추방과 올바른 성폭력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동결의대회'는 각 부문별로 성폭력 추방을 위한 실천과제와 지침 마련, 공동결의문 채택, 공동서명운동을 조직적으로 전개하는 성과를 낳았다.

조직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거의 전 회원단체가 성폭력 추방과 올바른 성폭력 특별법 제정을 위한 운동을 전개하였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지역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에 대하여 외곽단체와 연대하여 대책활동을 벌여나가거나(충북여성민우회), 성폭력 사업을 근간으로 한 연대모임을 결성하고 (대구여성회:성폭력 추방 대구지역 시민 단체협의회 결성), 성폭력 상담소를 개소하는 등(부산여성회, 경남여성회) 성폭력 대책 사업을 전개하면서 각 단체의 활동이 매우 활성화되었다는 점이다.

2) 여연의 '92년 주요사업

여연의 92년 주요사업으로는 평화통일 사업과 기층여성노동력 강화사업, 선거 대책활동을 벌였다.

〈평화통일 사업〉

평화통일 사업으로는 크게 조국통일 사업과 정신대 문제 대책 활동을 벌였다. 조국통일 사업의 목표는 조국통일 위원회가 주체가 되어 통일운동에 대한 여성운동 활동가들의 지도력 강화를 위한 교육활동을 전개하고 남북한 여성 교류의 실

현과 내용성 확보를 위한 내용자원과 북한에 대한 민족공동체의식 함양에 기여한다. 그리고 국가보안법 철폐, 통일 인사 석방운동 등에 대한 연대활동을 통해 통일의 장애를 극복하고, 군축 운동에 대한 연대활동을 통해 군사주의 문화청산과 여성복지 확대를 위한 여론을 조성하는 것으로 목표를 삼았다.

주요 활동으로는 '여성운동과 통일운동'이라는 주제로 두차례에 걸친 세미나를 개최하여 통일운동과 관련한 주요한 흐름과 과제를 교육, 홍보함으로써 통일운동의 방향성에 대한 논의의 기초를 제공하였다. 또한 '김희선씨 수배해제 및 임수경씨 석방을 위한 탄원서'를 작성하고 보도의뢰를 하였고, 임수경 대표 석방을 위한 서명운동과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서명운동에 참가하였다.

남북한 여성교류 사업으로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평양토론회 한국실행위원회가 주최가 되어 전개한 분단 이후 최초의 방북은 남북한의 민간교류운동의 물꼬를 튼 획기적인 성과로써 진보적 여성운동계 인사들이 통일운동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사업이었으며, 토론회를 상설기구화하는 성과를 가져왔다.

'여성복지 확대와 방위비 삭감을 위한 연대회의'에 참가하고 공동실천사업으로 '여성복지 확대와 방위비 삭감을 위한 결의대회(9월 18일), 국방비 삭감을 요구하는 편지쓰기 등의 사업을 했다. 이 사업은 금기시되어 왔던 방위비에 대한 총체적인 문제제기를 대중화하여 이후 군축 평화운동의 대중화를 한 중요한 매개를 확보하였고, 앞으로 방위비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과 군축의 여론화는 남북의 긴장관계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신대 문제 대책활동도 조국 통일 위원회가 주체가 되어 사업활동(연대활동)의 목표로는 정신대 문제의 정확한 진상규명과 배상의 실현을 위한 제반활동을 통해 정신대 사안을 역사적으로 복원해 내고, 최근 노골화되는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에 대해 국민의 경각심을 고취시켜 한 일관계를 민족자본, 자주의 회복을 통한 평등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정대협(정신대 문제 대책협의회)의 활동에 적극 결합하는 것으로 삼았다.

주요활동은 1월 초부터 매주 수요일 일본대사관 앞에서 가두홍보와 항의시위를 전개하였고, 이는 정대협의 활동을 국내외로 홍보하고 정대협 이외의 사회운동단체를 동참시키고 희생당사자들의 조직화와 투쟁 참여를 유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또 정대협이 주최하고 여연이 주관한 '정신대 아리랑' 공연은 정신대 문제를 문화적으로 홍보한 최초의 행사로 사전사후 홍보와 여론이 활성화되었다.

〈기층여성운동력 강화사업〉

노동위원회가 주체가 되어 사업목표로는 여성노동자의 고용불안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비정규직 (시간제, 촉탁, 장기 아르바이트, 용역 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대책활동, 정부와 기업의 노동통제를 목적으로 한 경영정책의 변화에 대한 대응사업, 생존권 투쟁지원 사업 등을 통해 여성노동자들의 고용불안정 해소와 모성보호의 확대를 위한 정책대안을 마련하고 홍보하여 평생평등 노동권 확보와 권익실현에 기여하는 것으로 삼았다. 주요활동은 (주)서광의 여성노동자에 대한 인권모독과 부당해고, 강제 사직에 대한 항의 및 원직복직 촉구 및 공문발송을 했고, 경영자 총협의회의 '여성관련 노동관계법 개악안 철회 촉구'성명서 제작과 보도의뢰를 통해 여론을 조직하여 경총에서 생리휴가 폐지안을 철회하는 성과를 가져왔다.

노동계 전반에 걸쳐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노동조건에 대한 실태조사를 노동위원회 회원단체를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결과는 공청회 등을 통해 사업을 밖으로 확대하지는 못하였으나 실태조사와 지속적인 면담을 통해 비정규직 노동에 대한 대책을 노조단위에서 수립하도록 하는데 기여는 하였다. 그러나 아직 비정규직에 대한 대책과 이에 대한 당사자들의 투쟁이 조직력의 미흡 등으로 인해 사회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염두에 두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당사자들의 조직적인 대응과 사회적인 여론의 형성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제조업과 사무직 노조, 여성단체, 노동운동단체가 공동으로 여성노동정책(근로기준법 개정 요구안)마련과 홍보를 위한 연대활동을 벌여 여성노동정책을 마련하고, 실천활동을 전개한 최초의 활동으로 이후 여성운동 이슈를 중심으로 한 연대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특히 노동조합과 여성운동단체가 결합하여 최초로 통일적인 여성노동정책안을 마련하고, 노동자들에게 배포하여 현장여성노동자들의 모성보호와 평생평등 노동권 확보를 위한 교육내용의 기초를 제공하였다.

여성노동자의 고용안정 확보와 모성보호를 위한 제반 조건의 확보를 통한 평생평등 노동권 확보운동은 비정규직 여성 노동력과 저임금의 여성인력을 탄력적으로 활용하려는 기업주의 이해와 맞물려 앞으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것이다. 노조 등과의 연대를 강화하여 비정규직 노동과 여성의 평등한 노동권 확보를 위한 노조의 역할을 높이고,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 지원하고 이에 대한 구

제적인 대책마련과 함께 노조나 당사자와의 연대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3) 여연의 93년도 사업방향과 과제

올해 여연의 사업방향과 과제는 92년도 사업에 이어서 92년도 사업 내용과 그 성과에 있어서 부족한 점을 보충하고 사업을 확대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1) 선전의 측면에서

① 성폭력 특별법 제정수립 및 성폭력 추방을 위한 압력 활동 전개

92년은 성폭력 범죄가 사회적 범죄이며 사회적 대책마련으로서 성폭력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여론을 불러일으켰고 여연의 성폭력 특위안을 비롯한 3개안이 현재 국회에 상정중이다.

이에 93년도에는 92년도 활동의 성과를 맺는 해로 삼아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여성계의 요구를 전반적으로 수렴한 성폭력 특별법이 국회내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성폭력 특별법 제정에 대한 각종여론 압력활동을 벌여나갈 예정이고 이와 더불어 성폭력 추방을 위해 성폭력을 조장하고 있는 파행적 산업구조(향락산업의비대화) 및 음란, 퇴폐문화에 대한 제도상의 문제점 지적 및 대안제시를 사회적으로 여론화시킨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활동으로는 성폭력 특별법 제정방향 및 조속한 제정의 여론조성을 위한 공개서한 전달과 국회 앞 정거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그리고 올바른 성폭력 특별법 제정을 위한 문화행사와 제정방향의 여론조성을 위한 설문조사, 정부관련 부처와의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그 밖에도 '성폭력추방주간' 선포와 관련행사 개최, 성폭력문화 추방 기획 캠페인 전개, 홍보출판사업을 하기로 하였다.

② 군축과제로 방위비 삭감 및 여성복지확대를 위한 여론화 작업과 여성운동의 관점에서 통일정책, 통일 방안 마련을 위한 과제 사업

새정부가 통일정책과 관련하여 여러 정책을 내올 것에 대비하여 진정한 통일의 내용적 기초를 내오기 위한 여론작업으로, 군축문제의 방위비 삭감과 여성복지확대를 위하여, 여성운동의 관점에서 통일정책, 통일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와 여론화작업에 그초점을 둘 것이다. 또한 통일후 독일에서 여성의 생존권 문제등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보장제도정책의 후퇴 등으로 보여지는 문제와 관련하여 통일 이후의 여성문제에 대비하는 연구작업도 진행한다. 그 구체적인 활동으로는

공개토론회를 활성화시켜 상반기에는 각 정당과 재야의 통일방안, 정책에 대한 위원회내부 워킹과 자문위원 초청토론회를 열고 하반기에는 상반기의활동 성과를 토대로 하여 각 정당 초청 토론회 등의 연구성과에 대한 공개사업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군축평화운동으로 '방위비 삭감과 여성복지 확대를 위한 연대모임'과 연대하여 활동을 전개하며, 4월 임시국회 중 공개질의서를 작성하고 6월쯤에 방위비 삭감을 위한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③ 여성노동문제로서 여성고용불안정 문제와 관련한 비정규직고용(임시직, 시간직, 용역 문제 등)에 대한 사안을 사회적으로 제기하고 여성고용안정을 위한 제도 마련에 대한 활동을 전개한다.

90년대 초반부터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비정규직 고용문제(임시직, 시간직, 용역문제) 등 여성의 고용불안정과 노동조건악화를 가져오는 사안에 대해 현장당사자와 노동조합과 연대하여 공동대처함으로써 고용불안정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제기와 여성고용안정을 위한 제도적 대비책 마련을 위한 활동을 전개한다. 그 구체적인 활동으로는 민우회와 연계되어 활동하고 있는 현장 당사자와 서울여노, 인천여노 등을 통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는 투쟁사안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대응하고, 비정규직 고용중에서도 가장 고도한 노동착취, 권리가 없는 상태에서 음성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용역노동에 대한 대책과 이에 종사하는 용역노동자의 보호대책 마련과 정부의 '용역법' 제정에 대한 신속한 대처를 위해 임시국회를 즈음하여 용역 문제 해결을 위한 공청회를 마련한다.

④ 정신대 문제 해결을 위한 연대활동 강화

정신대 범죄에 대한 진상규명, 배상등 정신대문제 해결을 위한 국내외적 여론작업(유엔, 일본, 아시아)등 정대협 활동에 적극 결합한다.

2) 조직의 측면에서

① 구체적인 지역여성운동의 모델을 창출하기 위한 조직적활동을 전개 여성정치세력화를 위한 구체적 조직과제로서, 현재 생협, 공부방, 탁아소, 문화센터 등을 매개로 한 지역내에서의 지역여성운동 조직화방안을 위한 시도들을 전개하고, 이러한 지역여성운동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 여성의 정치세력화 방안을 보다 구체적인 과제로 확보해 나가도록 한다.

② 각 부문, 지역회원단체들간의 조직결속력 강화활동

조직적 결속력은 주요 해당 사업 내지 회의체계를 중심으로 주요지도력간의

결속력 강화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온 것에 따라 93년도에는 이러한 골간체계를 중심으로 골간체계의 활성화를 통한 주요 지도력간의 결속력 강화(대표자회의, 집행위, 정책과 사업위, 지역위)와 더불어 지역 부문운동에 편재되어 있는 회원 전체간에 전면적인 결속력을 확인하고 동지애를 공유하며, 여성운동에 대한 주체성을 높이고 연대운동의 구심점을 강화할 수 있도록 93년도 하기수련회는 단합대회적 성격을 지닌 수련회로 진행한다.

③ 여성운동의 주체역량강화(특히 전문성 및 효율적인 사업방식의 확보의 측면에서)를 위해 과제별, 부문별 위원회의 프로그램의 질적 내용의 풍부함과 그 활성화를 통해 관련 사업을 해 나가고 있는 회원단체에게 사업에 따른 결합력을 높여 해당단체의 주체역량 강화에 기여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정책전문 위원회, 주부위원회, 성폭력 특위 등에서 진행하는 사업의 질적 고양에 힘쓰도록 한다.

한국 여성단체 연합 회원단체

거창여성회, 경남여성회, 광주전남여성회, 광주여성의전화, 기독교민회, 대구여성회, 대전충남여성회, 민족미술협의회여성미술연구회, 부산여성회, 서울 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회, 인천여성노동자회, 주부아카데미협의회, 제주 여민회, 지역사회탁아소 연합회, 충북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 전화,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신학자 협의회, 한국여성연구회, 한국기독교 교회협의회 여성국, 함께하는 주부모임, 전국여성농민회 총연합회.

신문속에 세상이 보인다.

모으면 의학백과가 되는 건강정보

일상생활중 건강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는 신문지면에 건강 관련 면, 내용 면의 증가로 반영되고 있다.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눈으로 잠깐 훑고 지나쳐버리기 십상이다. 건강관련 기사는 몇가지 묶음으로 나누어서 모아 보관할 필요가 있다. 부위별 질환진단법, 응급처치법, 산전산후 조리법, 아이들 건강, 건강식품, 한약이

용법, 음식물과 영양 등으로 구성되어 필요가 있을 때마다 열람하여 이용하면 유용하다. 각 신문의 건강란을 보면 동아일보에는 금요일마다 건강, 가정의학상식을 싣고있는 '건강만세'가 있고 한겨레는 금요일 '진료25시'가 있다. 조선일보는 목요일, 중앙일보는 수요일에 건강문제를 다루고 있다.

아동교육

소풍도 교육이다.

아동교육분과

아동교육분과에서는 매시기 탁아소 행사활동 지원을 위해 논의를 거쳐 지침을 내기로 했다. 이는 우리가 이미 하고 있는 아동교육 활동의 정리이며 그것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1년 계획에서 나왔던 순서에 따라 행사활동 지침서가 나올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더욱 발전된 교육 활동을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4월에는 어린이날에 대한 내용을 소개할 예정이다.

우리는 왜 소풍을 갈까?

'그 전에도 했었고 앞으로도 해야 할 것 같기 때문에?'

우리 교사들 중 소풍을 왜 간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곰곰히 생각해 본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아동교육분과장 회의를 통해 마련된 이 자료는 교사들에게 '왜 소풍을 가는가?'와 '소풍이 교육이다'는 물음에 대해 해답을 줄 것이다. 또한 완결되지 않는 못했지만 실재를 준비하는 올바른 길로 이끌 것이다.

소풍이란 무엇인가?

소풍은 교육활동이다. 탁아교사인 우리들은 교육이라고 하면 교실과 칠판, 훈계하는 선생님과 주눅들고 아이들만을 생각하는 정도의 틀에 박힌 사고를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지식을 주고 받는 교사와의 상호작용이 교육활동이라는 생각은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고정관념이다. 이런 의미에서 소풍이 교육활동이라는 생각은 잘 하지 못하고 해왔던 활동의 관습적인 연장- 아이들에게 마음껏 뛰어놀라는 의미에서-으로 행해지고 있다.

이러한 생각에서 행해지는 소풍은 교사, 부모, 아이들에게 그것을 위해 들인 노력만큼의 충분한 만족을 줄 수는 없을 것이고 소풍 자체의 교육적인 의미도 살

리기 힘들 것이다. 이 글에서는 우선 소풍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정리하는 것 부터 시작하도록 하자.

소풍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소풍과 비슷한 개념으로 사용하고 실제 하고 있는 활동에 견학과 야외 학습이 있다. 각기 조금씩 다른 내용을 담고 있지만 여기에서는 견학과는 다른 소풍을 야외학습으로 생각하고 들어가기로 하자. 즉, 견학은 일정한 교육 주제속에서 그것을 전개해 가는데 일정한 공간-탁아소- 내에서 하는 것보다 특정한 장소에 찾아가서 실제 보고 활동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판단하에 이루어지는 때 시기 교육주제에 연관된 교육활동이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더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소풍, 즉 야외학습은 일정한 교육 주제에 의거하지는 않지만 야외에 나가는 것 자체로 아이들에게 심리적, 신체적 해방감을 느끼도록 하고 주위의 자연물들을 더욱 풍부하게 경험하도록 함으로써 일련의 교육활동을 더욱 촉진하는 것이다. 일부 유치원은 이런 기능은 가정의 기능으로 간주하고 교육기관에서는 '교육'이라는 주제에 근거한 견학활동만을 교육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탁아소는 아이들이 매일같이 12시간 가량을 생활하는 '생활 교육'의 장이므로 여기에서 소풍의 의미는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그러면 이렇게 강조해야 할 소풍은 어떻게 나누어서 하는 것이 좋고 어떤 방법으로 조직해야 교육적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보자.

소풍의 종류

1. 봄에 대부분 행해지는 아이들만의 소풍(자세한 실무는 뒤에 상술)

☞ 목적

1) 탁아소라는 제한된 환경을 벗어나 바깥 자연의 현상과 아름다움을 즐기고, 탐색하며,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도록 한다.

2) 아이들이 서로 공통된 규칙을 지키고 함께 놀이하는 가운데 친화력과 일치감을 높인다.

☞ 장소

탁아소가 위치해 있는 지역사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 특별한 경우에 차를 타고 멀리 가기도 한다.

☞ 계획된 프로그램의 유무

어떤 곳에서는 특정한 활동을 계획하기보다는 넓고 자유로운 공간에서 아이들과 교사가 마음껏 뛰어노는 것을 가장 중요한 활동으로 보고 진행하며 다른 곳에서는 일정한 프로그램을 준비해 소풍 공간에서 진행한다.

☞ 마무리 작업

탁아소로 돌아와 소풍갔던 일 그리기 등의 활동을 진행

2. 9~10월경에 진행되는 가족 소풍

☞ 목적

1) 엄마 아빠들과 함께 만나 친목을 도모하고 지속적인 만남을 위한 계기를 만든다.

2) 아이들과 엄마 아빠가 우리 가족만이 아니라 같은 탁아소에 다니는 가족들이 만나 함께 먹고, 놀면서 우리 탁아소에 대한 소속감과 서로에 대한 애정을 형성하여 올바른 공동체 의식을 갖도록 한다.

-> 이것이 어른들만을 위한 활동이 아니라 어른 아이 모두에게 중요한 활동임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족 소풍은 가족 모두를 위한 것이지 부모를 위한 것이 아니다.

☞ 장소

주로 계곡이나 산 등으로 많이 가며 같이 쉴 수 있는 넓은 공간을 선정한다. (태능 등)

☞ 계획된 프로그램

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먹고 일치감을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 마무리 작업

이 소풍을 계기로 아빠 모임 등을 지속시키고 가족들간에 다 알고 함께 탁아소 교육이나 모든 일에 참여하여 아이들이 졸업한 후에도 지역에서 서로 교류하고 유대 관계를 맺도록 한다.

3. 이밖에 물놀이, 대학 초청- 대동제 등에서- 방문, 일상적인 야외 활동-주위에 논밭이나 작은 야산이 있는 경우-이 있다. 뒤에 좀더 자세히 정리하겠다.

소풍의 실제

1. 소풍의 준비

- 1) 소풍의 목적과 일시를 명확히 한다.
- 2) 목적에 따라 장소를 설정한다. - *답사
- 3) 목적과 장소에 따라 소풍에 가서 할 활동을 정한다.
- 4) 위의 것에 따라 필요한 물적, 인적 자원을 계획한다.
- 5) 교사간 역할분담을 하고 실무에 들어간다. - 소풍 프로그램 담당, 예산 담당, 가정에 공문 발송, 기타
- 6) 아이들에게 00월 00일에 소풍갈 것임을 알려 주고 소풍에 가서 할 것을 서서히 준비해 들어가도록 한다.
- 7) 비 올 때를 대비하기

* 답사시의 교사 역할

바깥에 나갈 경우 장소의 선정은 그 활동의 성패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다. 교사는 답사를 통해 장소가 소풍의 목적에 적절한지 소풍에 가서 할 활동의 장소를 미리 선정해 보는 일을 하며 목적과 장소의 적절성에 대한 타진은 꼭 필요한 일이다.

2. 소풍의 실제

1) 당일 아침

☞ 아이들과 하는 활동

소풍을 갈 때 각 집에서 임의의 장소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탁아소에 모여서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하고 가도록 한다.

☞ 이야기 나누기 - 소풍을 어디로 갈 것이며 누구누구가 가고, 가서 어떤 것을 할 것이며 서로가 지켜야 할 약속은 어떤 것인지를 이야기한다. 이것은 매번 어떤 장소로 나가든지 필요한 것이다.

☞ 화장실 가기 - 바깥에 나가서 화장실을 갈 수 없기 때문에 탁아소에서 나가기 전에 화장실을 가도록 한다. 소풍 장소에 도착해서 아이들이 개별적으로 가게

되면 교사가 전체적으로 관리하기가 힘들므로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함께 가도록 한다. 모여서 나가기 전, 장소에 도착해서, 밥먹은 후, 프로그램 시작하기 전, 장소에서 떠나기 전 등

☞ 교사의 준비

각 교사들간 책임맡은 부분 점검, 아이들의 이름표 확인, 비상 약품 정리, 차량을 준비할 경우 차량의 점검, 아이들과 이야기나누기 할 것 정리, 자원교사 확인

* 준비해야 할 비상 약품 - 상처 치료 구급약(지혈제, 연고, 붕대, 솜, 반창고 등), 소화제, 멀미약 -> 이것과 돈을 챙겨서 허리 주머니에 차고 손을 쓸 수 있도록

* 이야기 나누기의 예

- 아이들이 와서 탁아소에서 놀다가 다 모여 갈 시간이 되면 놀이감을 치우고 넓게 모이는 자리에 함께 모이도록 한다.

- 이야기의 내용

- = 우리는 오늘 무엇을 하려고 하나?
- = 어디로 가려고 하나?
- = 가서는 무엇 무엇이 있나?
- = 선생님 말을 잘 따라야 하고 자원교사의 말도 잘 들어야 한다.
- = 길을 걸어갈 때는 각자 자기 짝의 손을 잘 잡고 다녀야 한다.
- = 차를 탈 경우-그밖의 예에 대해서도-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
- = 이름표를 나누어주고 잘 달도록 하고 짝을 정해준다.
- = 짝끼리 차례로 화장실에 갔다 와서 밖으로 나가도록 한다.

2) 소풍지에 도착해서

도착해서 차례로 잘 들어가도록 한다음 한 장소에서 모여 장소의 특징과 어떻게 하루가 진행될지를 이야기한다.

* 점심 식사

- 소풍시는 집에서 도시락을 싸오도록 하고 가족 소풍의 경우에는 아침에 함께

쌀 수도 있다.

- 일정하게 밥먹을 자리를 마련해주고 아이들이 편안하게 음식을 먹도록 도와준다.

* 프로그램 진행

- 프로그램이 없는 경우

이때는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며 아이들이 자연을 마음껏 느끼며 탐색하도록 충분한 자유를 주되 탁아소에서와 마찬가지로 놀기 어려워하는 아이들은 도와주고 놀이거리가 없을 경우에는 그 장소에 오래 머물지 않도록 배려하거나 함께 놀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한다.

- 프로그램이 있는 경우

주위 자연환경에서 충분히 스스로 놀 것이 없는 장소에서 프로그램의 준비가 필수적이다. 이때는 함께 할 수 있는 아이들의 대동놀이를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짠다.

프로그램은 동부지역에서 92년에 발간된 게임놀이 자료집을 참고로 하여 잡아본다. 이때 할 놀이의 선정기준은 ① 아이들이 하나도 소외되지 않고 모두 함께 할 수 있는 놀이 ② 넓은 장소를 필요로 하는 것 ③ 평소에 하던 것 중 재미 있는 것 등이다. 앞으로 소풍시의 놀이에 대해서는 더욱 풍부하게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

* 놀이가 끝난후 휴식시간을 갖도록 한다.

아이들이 조용히 놀 수 있는 것과 휴식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준다. 소풍에서 아이들이 너무 무리하게 놀면 지나친 피로와 감기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많다.

* 자원교사의 역할

소풍에서는 정교사 외에 자원교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다. 자원교사는 안이하게 아이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 안전의 담당자로서 일정한 수의 아이들을 책임지도록 하여 정확하게 자기 역할을 할 것을 강조한다. 이 부분이 잘되지 않으면 교사는 아이들을 돌보는 것 이외에 다른 일을 잘 할 수가 없다.

* 집에 가기

조용한 놀이를 하거나 휴식을 취한 후의 아이들을 모아서 다시 화장실에 가도록 하고 길에서의 주의점을 상기한뒤 돌아간다. 오늘 놀이가 어땠는지 평가도 떠나기 전에 진행할 수 있다.

3) 사후 작업

- 다음날 정도 소풍갔다는 것에 대해 다시 상기하는 이야기 나누기를 진행하고 소풍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활동을 진행한다.

예) 소풍가서 본 것 그리기(소풍갔던 장소), 소풍가서 있었던 물건의 소리와 그림을 연결하기, 소풍 가서 특징적인 일이 있었다면 그 일에 관계된 활동하기(가는 길에 불자동차 등을 보았다면 그에 관계된 책을 내준다든지), 사진 찍어와서 함께 보며 이야기 나누기 하기

교사가 더 생각해봐야 하는 것들

1. 소풍에서는 진행에 융통성을 발휘해야 한다. 준비된 것을 꼭 해야 한다는 것보다는 아이들의 상태와 주위 조건에 맞게 운영해야 한다.

2. 안전 교육

우리가 탁아소에서 아이들과 지내면서 가장 기술이 필요없으면서도 가장 신경쓰이는 부분이 아이들의 안전에 관한 부분이다. 언제 일어날지 예방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며 한번 일어난 사고는 돌이킬 수 없기 때문이다.

야외학습을 나갈 때는 이러한 어려움이 더욱 커진다. 탁아소라는 한정된 공간에서도 아이들은 서로 싸우다가 다치고 물건에 부딪혀 다치곤 하는데 전혀 새로운 환경에서 무슨 위험요소가 나타나서 아이들에게 상처를 입힐지 모르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자주 바깥에 나가거나 나가서도 아이들을 필요 이상으로 속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우리가 전후를 잘 생각해서 대처할 문제이다.

야외학습에서의 안전을 생각하기 이전에 구비되어야 할 조건을 다음과 같은 것이다.

1) 부모들과 함께 탁아소에는 항상 위험의 요소가 존재하고 있으므로 아이들이

다치는 것에 대해 공동의 책임임을 공유한다. 이 과정에서는 부모의 교사에 대한 신뢰의 정도와 교사의 보호에 대한 책임감의 정도가 높아야 한다.

2) 평소에 아이들이 자신의 몸을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이러한 평소의 활동을 통해 안전의 중요성을 서로 공유하고 있으며 소풍시에는 이러한 바탕에서 더욱 자세히 소풍갈 곳의 특성과 아이들끼리 손을 잡고 다닐 것, 찾길에서 주의할 것, 이름표를 꼭 달고 있을 것, 구급약품 준비, 탁아소 전 화번호를 써주거나 외우도록 하여 구체적인 상황에서 안전에 대한 예방을 충분히 한다. 우리의 조건에서 아이들이 위험하므로 자주 바깥에 나가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소풍의 장소가 너무 위험한 요소들이 없는 곳(공사중인 장소 등은 피함)을 선정하는 것과 자원교사가 충분히 확보돼서 아이들을 잘 살필수 있도록 하는 배려는 필수적이다.

*안산 야외수업과 가족물놀이의 예

〈 야외수업 〉

장소 : 안산시에 있는 팔각정

목적 : 좁은 실내 공간에서 탈피해 바깥 자연의 현상과 아름다움을 만끽하고, 탐색하며, 자유롭게 뛰놀 수 있도록 한다.

시기 : 4월

- 내용 : 1) 출발전 주의사항 및 약속
2) 자유 놀이
3) 점심
4) 자유놀이 및 사진 촬영
5) 귀가

〈 한양대 대동제 초청 〉

목적 : 일반적인 야외학습의 목적과 더불어 자활들과 아이들, 교사간의 친화력을 높이고 자활이 중심이 되어 사업을 함으로써, 좀더 긴밀한 연대를 하도록 한다.

내용 : 자활의 일일 부모, 학교 축제 구경, 노래자랑 참가, 풍선터뜨리기, 비누방울 놀이

〈 가족 물놀이 〉

장소 : 안산시 근교(물이 있는 곳)

목적 : 1) 엄마, 아빠들과 함께 만나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2) 아이들에게 물놀이의 기쁨을 알게 해주고 여름의 자연을 경험하게 한다.

시기 : 1992. 8. 15

내용 : 1) 준비 - 자모와 함께 준비함(예로 장소 및 음식은 자모가 준비하고 놀이 프로그램은 교사가 준비한다.)

- 2) 자유놀이 및 텐트 치기
3) 조별 식사준비 및 식사
4) 계획된 프로그램 진행

** 새책소식

고맙다,논리야 (사계절 출판,위기철 지음/ 3천5백원)

옛이야기,도움말 등을 통해 논리학 습을 가르치고 있는 어린이용 책이지만 성인동화집으로 손색이 없는 책이다. '반갑다 논리야' '논리야 놀자'를 잇는 책.

다시 읽어야 할 우리소설(사계절 출판,문학교육연구회 엮음 / 각권 4천5백원)

192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우리 문학의 대표적 작품들을 총망라한 책으로 5권이 나와있다.

이제 좋은 아버지가 되자 (여성사 출판,좋은 아버지가 되려는 사람들의 모임 지음 / 5천원) 젊은 아버지들에게 가정에 대해,아버지의 역할에 대해 새게 생각하도록 도움을 주는 내용이 있다.

역사앞에서 (창비 출판,김성철 지음 /5천5백원)

서울대 사학과 교수였던 지은이의 6.25당시의 일기를 모아 만든 책으로 양심과 인륜에 어긋나지 않도록 스스로 채찍을 가하는 그의 삶의 자세가 잘 나타나 있다.

아이는 그림으로 말한다. (여성사 출판,부모를 돕는책 편집위원회 지음 / 5천원)

아이가 아이답게 생각하고 아이의 눈으로 보고 손으로 표현하는 그림의 세계란 어떤 것일까? 아이들의 그림그리기 지도에 도움을 주는 책이다.

개요

1993년 보사부 보육사업지침의 문제이해를 위하여 (교육자료)

영유아보육법개정특별위원회

들어가기에 앞서)

- 1.본 자료는 '93 보사부 보육사업지침서를 순서대로 살펴보았습니다.
- 2.그러한 가운데 전체적으로 문제되는 항목만을 짚었습니다.
- 3.각 지역에서는 '93 보육사업지침을 한장씩 살펴보아주세요.
- 4.그중에서 문제되는 항목에 대해 집중논의하여 주시고, 각 자치구별로 해당되는 사항(아동수,예산등)에 대해 본 자료를 검토,분석하는 가운데 별도로 자체작업을 진행해주세요.

I.보육사업 추진 계획

- 1.목적
- 2.기본방향
- 3.연혁및 현황

나.보육대상 아동추계 (보육사업지침 9쪽)

.보육대상아동 : 99만명 ('92)-> 100만명('93)

저소득층아동: 6만9천명 -> 8만1천명

공식신고된 시설에 보육되는 아동수는 4,229개소의 117,141명이다.(92년 10월 국감자료 참조) 이는 전체 0-5세아동수 3백9십4만명의 보육대상아동수의 3% 보육,탁아소를 필요로 하는 취업모의 0-5세 아동 1,774천명의 7%보육에 불과하며, 보사부에서 순 보육대상아동 100만명의 12%에 불과하다. 지난해의 경우 보육대상 아동수의 보육정도는 9%.

다.보육시설 수요 (9쪽)

1)확충계획 중에서

시설 확충계획 (32,343개) 중 국공립/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의존도 증가하였다. (14,369개) 그와 반대로 가정보육시설 감소 (17,948개)

① 확충계획중 국공립과 민간보육시설의 비율을 밝혀야 한다.

:비율을 밝혀 의존도 높음을 확인하여 지원의 구체적계획 등을 요구,지원정당성 가져야한다.

< 보육시설현황 >

	구분	계	국공립	민간	직장	가정
1991,9월말	시설 수 (개소) 아동 수 (명)	3,562 85,403	476 35,873	1,061 31,994	19 661	2,006 16,875
1992,8월말	시설 수 (개소) 아동 수 (명)	4,229 117,141	700 48,353	1,627 53,227	23 751	1,879 14,810

②가정보육시설의 감소원인 규명화해야 한다.

보육대상아동을 국공립,민간이용으로 유도하는 것인가.

법 정책등에 따라 소규모 가정보육시설의 운영을 압박화인가.

4. 보육시설 추진계획 (10쪽)

가. 보육시설 확충

1) 저소득층 밀집지역

가) 시설확충계획

'92년 135개 계획에서 '93년은 554개

10쪽 아래 표를 살펴보면

시설의 신축에 의한 확충이라기보다는 시설에 대한 전환유도와 인가 유도에 따른 확충계획이다. -> 기준완화 (건물용도,지역에 상관없이 설치 가능)

나) '93년도 추진계획

11쪽 <'93 보육사업 국조보조예산> 표를 살펴보면

운영시설수 800개소 -> 1506개소

신축 50개소 -> 100개소

공단71개소

1) 92년 8월말 현재 신고된 국공립 700개소를 포함한 1,506개소에 대한 시설별 지원을 밝히고 있다. 이는 4,229개소의 35.6 %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지원계획만 밝히고 있다.

2) 지원받는 아동수와 예산의 비교

II. 보육시설의 설치

1992년과 별다른 내용은 없으나

5. 새마을 유아원의 전환

이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92/10/11 교육부 국회제출자료참조)
 '93년말까지 전국 1천 1백10개의 새마을 유아원 중
 대도시지역 4백6개를 사립유치원으로,
 농어촌, 중소도시지역 4백63개를 유치원 및 탁아소 겸용
 으로 전환시킬 방침이며,
 나머지 2백41개 시설도 유치원, 탁아시설로 전용계획이다.
 따라서 1982년 유아교육진흥법으로 설치됐던 새마을 유아원이 전부 전환됨.

III. 종사자관리

1. 종사자 배치 기준

가. 국공립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 및 직장보육시설

25쪽의 표에서 바뀐 사항이 있음. 간호사 2)가 50인→100인 영양사3)이 50인
 →100인 으로 다소 완화됨. 표밑에 나와있는 주 3)을 살펴보시기 바람.

바. 종사자 인봉시 유의사항

3) 기타 유의사항

유아교육 및 아동복지에 관련된 학과의 학생 및 육아 경험이 있는 여성들을
 자원봉사자로 적극 활용하되, 시.도의 사정에 따라 지방비 등을 확보하여 수당지
 급 가능 → 요구화할 수 있다.

3. 종사자 경력인정 (32쪽)

무자격자가 자격취득과 함께 이전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음.

- '82.2.2 이전 근무: 근속호봉은 인정하여 지금, '94까지 취득해야 .
- '82.2.2 이후 임용된자: 취득까지 초급호봉지급. 자격인정된 후 이전근
 무기간의 5할인정
- 양성교육 이전이전 기간은 5할, 이후 근무경력 10할 인정

4. 종사자 보수

우리 민간비영리 탁아소 교사가 국공립 시설에 있을 경우 그곳에서 받을 수
 있는 보수를 계산해보자. 유아, 영아교사

7. 위탁대상 교육훈련시설의 선정

가. 위탁신청시 업무처리 요령 (42쪽)

교육훈련시설로 위탁 신청시에 지난해에 있었던 서울시에 훈련기관 몇개, 몇
 개 등의 수의 제한이 없어지고 시설조건이 적당하면 교육훈련시설을 위탁선정받
 고자 하는 자를 전부수용하여 선정함.

바. 교육훈련시설의 수강료.

수강료는 교재비 포함하여 (수강료는 30 %로 내외로 조정가능)

양성교육 (497,234원) : 지난해에 비해 8,1 %인상

보수교육 (19,250원) : 지난해에 비해 7,8% 인상

수강료 지원의 문제점

대상; 고졸이상, 생활이 어려운 기혼여성에 한해 통반장이 추천하여 노동부에서
 전액 (약 50만원)을 지원, 전국적으로 약 300명 예산을 잡았던 지난해의 경과는?

또한 시설에 근무중인 교사를 우선 선정하는데 절차는 대상자를 위탁받은 교육
 훈련시설장이 관할 지방노동청장에게 청구한다.

이에 우리의요구는 - 아직도 아래사항이 유효한지가 점검되어야

1. 교육훈련시설을 이용하기 쉬운곳에 선정하여야
2. 수강료 지원의 경우 미혼, 현직교사에게 우선권이 있어야
3. 교사수강시 민간탁아소에도 기본급 지급에 대한 보조와 자원봉사자 활용인건
 비 보조가 나와야
4. 시설장교육에 따른 시설휴지를 방지하는 대안을 수립해야 한다.

IV.보육시설의 운영

1.보육대상 (55쪽)

나. 보육위에서 12세까지 연장가능 (지원이나 기타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2.입소순위

지난해와 달리 좀더 세분화해서 항목을 첨가했으므로 주의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 1)생보자의 자녀
- 2)의료부조자의 자녀
- 3) 모자일시보호시설 모의 자녀
- 4)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모자가정(편부포함)의 자녀
- 5)가구당 월평균 소득 70만원 미만 가정의 자녀
- 6)기타 일반주민의 자녀

보육료의 전액 면제 대상

보육료의 50 %수준

지원대상

3.저소득층 보육대상 아동 보육 철저 (56쪽)

보육정보센터
사회복지 전문요원
사회담당공무원 등

저소득층아동의 시설이용유도
보육비용지원,보육시설 입소 절차등에 대해
홍보하여 이용유도

5.보육료 (60쪽)

<작년,올해의 표준보육 단가 비교 >

구분	국공립 등의 지원시설	민간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
3세 미만	'92 113,640 '93 124,390	142,240 148,470	192,870 200,720
3세 이상	'92 72,970 '93 78,000	100,740 102,080	138,320 139,830

(보육정원 66명기준,단 가정보육시설은 10명 기준임)

각 시설별 단가 차액은 항목의 차등 책정 및 인건비 명수의 차이 그리고 기준

아동수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위 표를 살펴보면 민간과 가정의 경우 작년에 비해 올해의 인상폭이 크지 않다. 국공립 등의 지원시설의 경우 표준보육단가의 폭이 상대적으로 큰데 이는 정부지원이 이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기에 보육단가를 인상한 것이 아닌지 추측.

6. 정부지원 (63쪽)

전액지원 : 법정저소득층 (생보자,의료자)자녀와

모자일시보호시설에 입소중인 자녀

(이들도 간식비 1일 500원씩 부담)

50 % 수준 지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만원 미만 계층의 자녀

모자복지법에 따라 선정된 편부,편모의 자녀

인건비등 운영비 일부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비영리 법인이 설치.운영

하는 보육시설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설치등에 소요되는 보조금을 받은 시설 등

V.보육사업 국고보조 업무 수행지침

3.국고보조금 지원기준 (88쪽)

가. 세부사항별 지원기준

지원방향 - 아동별/시설별 이원화 지원

- 각 시.도별 사업량은 지역및 시설 여건을 감안하여 자체 실정에 맞게 배정예산의 범위내에서 조정

1) 아동별 지원기준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문제점 -> 가구당 월평균소득 70만원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50 %수준을 지원하는데 현실적으로 편부,편모가정의 맞벌이로 70만원미만가구는 드물다.

지난해 60만원 미만의 책정의 근거는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이 12만원임을 근거로 하였다. 그러나 올해의 경우 (아래 참고2)를 보면 이에 대한 고려가 되어야

그러나 평균 소득속에서 고소득자와 저소득자의 편차가 크고 분포비율이 같지 않다는 속에서 도시근로자 평균소득도입에 한계가 있다.

실제 시설을 이용하는 생산직 노동자의 평균 소득이나 업종,주거상태 등이 반

영되어야 한다.

해당경우 부.모 중 1인의 경제활동 불가능 -> 소득증명안됨

지원선 자체의 문제가 있다 - 소득, 주거, 가족수 고려되어야
- 최저 생계비 개념을 도입

참고1) 생계비 종류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통계청('92 2/4 분기)	668,300	798,300	1,021,100
전노협('92.11)	817,800	968,900	1,254,200
노총(92.12)	760,800	869,500	1,256,100

참고2) 통계청 1992년 12월 24일 발표 『3.4분기 도시근로자 가계수지 동향』

92.7~9월 중 도시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백40만 6천 2백원이다.

이는 같은 기간내 (91) 1백 23만 2천 7백원에서 14.1 %인상된 것

또한 3.4분기 중 월평균 가계 지출은 1백만8천 6백원이고

이는 같은 기간내 (91) 877,800원보다 14.9 %가 인상된 것

< 올해의 아동지원단가 >

구 분	계 (지원액수로 책정된)	자부담(부모부담분)	실제지원액수
법정 저소득층			
3세미만	132,300 -	26,460 =	105,840
3세이상	84,910 -	16,980 =	63,930
70만 원미 만			
3세미만	62,050 -	12,410 =	49,640
3세이상	39,820 -	7,960 =	31,860

국고:지방비:자부담의 비율이 92년도와 달라졌다.국고의 비율이 낮아진대
신 서울시의 경우 서울의 지방비의 비율이 매우 높아졌으며 (40 %->64 %) 지방의

경우 (16 %->32 %)로 높아졌다. (세부사항은 94쪽 참조)

자부담분의 내용은 92년을 추정해볼때 차량유지비, 간식비 등이다.

2) 시설별 지원 기준 (90쪽)

운영보조 -1,506개소, 7530명에 대한 운영보조

기능보강- 631개소

->시설지원확대 특히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의 의도가 크다. 인건비 중 보육
수당, 복지수당, 장기근속수당신설과 연금을 인상.

시설신축에 있어 '92는 공단특화가 거론되었으나, '93년에는 별도의 지침내용
이 없다. 개보수비는 기존시설, 새마을 유아원의 전환시설에 한해 지원이 된다.

VI. 국고보조 예산 (119쪽 참조)

(작년과 올해의 탁아예산 비교)

(단위:천원)

	전체사업비	(국고:지방비:자부담)	국가의 탁아예산
'92년도	69,320,249 (6백9십억)	(66:23:11)	45,451,617 (4백5십억)
'93년도	112,377,809 (천백십일억)	(42:46:12)	47,448,556 (4백7십억)

예산 총괄에서 주의깊게 살펴볼 것은 전체사업비를 살펴볼 경우 굉장히 많이
늘어난 듯하지만(62%인상), 실제로 국가탁아예산을 볼때 겨우 4 % 인상되었다.

예산확보의 문제점 제기.

상대적으로 지방비의 부담이 커진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지방실정에 맞는 추
가지원이 가능하다는점에서 긍정성을, 지방세 확보가 어려울 경우 예산을 자체
축소할 것이라는 점에서 단점을 지적할 수 있겠다.

현재 인천의 경우에는 자체예산 7억여원속에서 지원계획을 밝혔는데 살펴보면
총 17억5백4만원의 시및 구예산을 투입, 아동복지시설 수용자의 간식비를 1일 270
원에서 500원으로 늘려지급하고 시설 종사자에게 월5만원씩 지급하던 장려수당을
올해 7만원으로 올리고 3천8백70명의 아동을 보육하는 97개소의 어린이집에 운영

비 3억8천6백만원을 지원한다. (93.1.20인천일보)

다른지역의 경우 지방세 확보가 어려워 지원의 전망이 불투명해지라 예상이 되는데 이에 대한 대안을 논의해보자.

<예산 배정 (119쪽에서 130 쪽까지의 내용정리)>

(단위,천원)

시설 운영비	시설운영비 (54.3%) (종사자인건비,종사자 수당)	25,750,087	1,560개소 7,530명
국고보조금 41,724,187 (87.8%)	아동지원 (33.6%) (법정저소득층,70만원미만 아동 = 61,195명)	15,974,100	10,843명 50,352명
시설기능보강비 국고보조금 5,724,369 (12.1%)	신축 100개 - 3,381,073	이 항목은 자부담분	
	개보수 451개 - 2,287,290	이 없다.	
	장비비 80개 - 56,000		

VII. 행정사항

1)전반적으로 보육정보센터의 설치,운영에 대한 비중이 커짐.

->이를 고민하는 지역은 위탁 -> 역할 등 구체화된 요구 가질 것

2)보육교사의 교육경력 인정

- 새마을 유아원 등에서 유치원 교사자격증 소지자는 보육시설 근무가 교육경력으로 인정 안되어, 근무나 시설전환 반대

-교육경력 인정으로 종사자 유도

영유아보육법 개정안토론자료와 보육사업지침분석 교육자료를 가지고
각 지역위에서는 3월 둘째~넷째주간에 논의를 활발히 해주시기바랍니다..

< 결 론 >

1)지침분석의 결과 기본적인 지원선에는 한계가 있으나, 지방비의 부담이 커진 현재 지방단위 요구싸움이 효과적이라고 보여진다.

2) 지원의 확대와 더불어, 보육위,보육정보센터 등에의 적극 참여로 민간참여 단위의 위상을 높여내어야 한다.

3) 시의원,타 민간탁아소과의 연대가 더욱 절실하다.

(중앙차원의 대보사부 요구내용을 간추리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에 대해 질의하고 요구화할 수 있다. 이들 내용에 대해 토론하고 요구의 관철을 위해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논의해보자.

1) 탁아수요(아동수)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따른 보다 현실적인 확충계획과 지원계획의 수립

2) 가정탁아소의 숫적감소의 원인과 대안

3) 아동지원선 '..70만원미만'의 비현실성 제기와 지원확대를 위한 근거마련

4)민간탁아소에 대한 지원확보를 위한 근거내용및 논리마련

5)국가탁아예산의 4%인상폭에 대한 문제제기와 탁아예산확보방안 촉구

6)탁아문제에 대한 장기적,적극적인 국가의 의지표현을 요구

(지역별 작업을 위한 밑작업으로 다음 사항들을 고려해야)

1.각 지역별 취업모의 0-5세 아동수,보육대상 아동수,보육대상아동중 저소득층 아동과 일반아동수를 입수

2.월평균 소득 70만원미만을 지원대상이라 하는데 이의 비현실성을 입증하기 위한 지역위 자체 자료 - 이는 부모소득조사표를 조사,분석하여

3.작년도 국고:지방비:자부담 비율이 64:16:20 에서 올해의 경우 46:44:10으로 지방비 부담이 크게 올랐음을 알 수 있는데 이에 따라 각 시도별 보육예산규모를 입수.

4.보육시설 확충의 추진 방법 중 지방자치단체의 공립시설 설치확대및 기존 시설의 전환계획을 지침에서 (11쪽 하단)밝혔는데 우리 시도의 경우 민간위탁시 선정기준은 무엇이며, 조례로 제정될 계획은 없는지.

5.시의 보육정보센터 설치계획에 대하여 (14쪽)

6.자원봉사자에 대한 시비이용 수당지급 가능(31쪽)에 대하여

- 양성교육기간 중 대체하는 파트타임 교사 인건비로 지급이 가능한지

활동총괄

3.8 여성의 날 85주년 기념행사 각 지역에서 열려

3월 6일 / 전국여성노동자대회

3.8세계여성의 날 85주년 기념 전국여성노동자 대회가 3월 6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서강대 메리홀에서 있었다. 전국노동조합협의회와 전국업종노동조합회의,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한국여성민우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전국여성노동자대회는 「일터의 주인으로 우뚝서는 여성노동자」라는 대회 슬로건을 가지고 약 500여명이 모여서 85년전 자본가들과 군대에 의해 무자비하게 짓밟히면서도 노예같은 삶을 과감히 거부하며 탄압에 맞섰던 여성노동자들의 여성해방의 넋을 기리는 자리였다.

총3부로 진행되어졌는데 1부는 기념식으로 전문노련 김명숙 여성국장의 사회로 진행이 되었다. 1부에서는 특히 전노협의 단병호 의장이 여성노동자들의 피와 땀의 결실로 우리나라 노동운동의 역사는 발전했다는 내용의 기념사를 했다.또한 한국여노 대표인 이영순씨의 대회사와 세계 연대의 축전 낭독 시간도 있었고 전교조 정해숙 위원장이 '산전.후 유급휴가를 90일 이상으로 확대하라' '여성노동자의 고용안정과 고용평등을 보장하라' '직장탁아소 설치를 의무화하고 확대하라'는 특별 주장이 있었다.

2부는 각 단체 노래패들의 노래 공연과 '일을 하고 싶어요'라는 제목으로 중원전자 노조의 투쟁과정을 그린 중원전자 연극패의 연극이 있었다.

이날 여성노동자 한마당에서 가장 많은 박수갈채와 환호를 받았던 것은 지탁연 구로지역위원회 아이들과 교사들의 시간이었다. 구로지역의 구로놀이방, 튼튼이 놀이방, 온누리 탁아방에서 약 20명의 아이들과 4명의 교사가 참석했었는데 「조개와 노동자」, 「누가 누가 더푸른가」,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3곡의 노래를 예쁜 율동과 함께 관중들에게 선사하면서 밝고 맑은 아이들의 모습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또한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지탁연 활동을 홍보하고 앞으로의 법개정 투쟁의 의의를 설명하고 함께 동참해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마지막 3마당에서는 김호철과 노래공장의 노래로 <일터의 주인으로, 세상의 절반으로>의 내용을 표현했으며, 1,2부를 마치고 풍물패를 선두로 신촌 크리스탈

백화점 앞까지의 거리행진을 마지막으로 전국여성노동자 대회를 마쳤다.

이번 전국여성노동자대회는 생산직 뿐 아니라 사무직 여성노동자들이 연대하여 우리의 의지를 굳건히 세웠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시사되었고 직장탁아소 설치의 의무와 확대를 선언하면서 모성보호와 평생평등 노동권 확보를 함께 결의할 수 있었던 자리였다. 2부 한마당에서는 노래외에 다른 형태들의 문화적 내용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우리 아이들의 순서는 비록 준비하고 기다리는 시간이 아이들에게는 지루했겠지만 무척 참신하고 신나는 시간이었다.

(구로 남미영)

3월 7일 / '93 여성한마당

지난 3월7일(일) 인천지역탁아위원회는 인천노동자회가 주최한 3.8세계 여성의 날 85주년 기념대회에 참석하여 올바른 탁아법개정을 위한 슬라이드 <우리 아이들에게 희망을>를 상영하였다. 1부 기념식에 이어 벌어진 '93 여성한마당에서는 슬라이드 상영, 노래발표, 사례발표와 민중연합 여성분과에서 발표한 <성폭력없는 세상>이라는 연극, 그리고 대동제로 막을 내렸다.

이날 진행된 3.8세계 여성의 날 행사는 모성보호와 고용안정확보를 위한 뜻깊은 자리였다. 여성만의 책임으로 인식되어왔던 모성보호와 양육문제를 사회적 책임의 문제로 알려진 것과 노동법개정투쟁과 결합하여 각 업종의 여성노동자들이 모여 '출산 휴가 90일과 탁아제도의 확대, 임시직의 정규직화'라는 3대 여성노동정책 요구를 공동으로 선전해 왔던 지난해의 소중한 성과를 확인하고 올해도 단결과 투쟁으로 여성의 과제를 실현하자는 결의를 모으고 마쳤다. (인천 최홍국)

3월 8일 / 한국여성대회

한국여성단체연합(상임공동대표 한명숙)이 주최한 제9회 한국여성대회 -전진하는 여성, 열리는 사회가 3월 8일 (월) 서울 YWCA대강당에서 약 2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제1부 기념식에 이어 제2부 <성폭력특별법 제정을 위한 모의법정>을 여연 소속 단체회원들이 공동으로 마련하여 과연 누가 성폭력을 낳는 주범인가를 생각하게 하였다. 이어 마련된 '올해의 여성운동상'에는 여행원제 폐지와 신인사제도 거부 투쟁을 모범적으로 전개하면서 은행 최초로 탁아수당을 확보하고 출산휴가 80일, 유산휴가를 확보하는 등 여성의 평생일터 만들기에 주력하고 있는 중소기업은행

노동조합 여성정책실(실장 황금주)에서 받았다.

또한 성폭력특별법, 정신대문제, 교육제도 등의 해결, 일하는 여성들이 당하는 불평등하고 억압적인 현실의 타파, 사회개혁과 민주화, 남북합의서 실현과 민족통일을 위한 방위비 삭감 등을 올해의 과제로 삼고 전 여성의 단결과 투쟁을 결의하였다. 이날 대회는 제3부 올바른 여성정책 실현을 위한 가장행렬을 파고다 공원 앞까지 한 후 끝났다. (편집부 서정은)

*** 알아봅시다.

도시가계 소득증가 둔화 .. 교육비 급증

경기침체에 따른 고용둔화 및 임금안정 추세 등으로 인해 도시근로자가구의 소득증가율이 최근들어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출면에서는 교육, 교양, 오락비 등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납입금, 학원비, 과외비 등 각종 교육비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통계청 발표 『3.4분기 도시근로자 가계수지 동향』보고서에 따르면 7~9 월중 월평균소득과 가계소비지출은 다음과 같다.

구 분	1991년	1992년
도시근로자가구의 월평균 소득	1,232,700원	1,406,200원 (91년같은기간내보다 14.1%증가)
이같은 소득증가율은 지나 2.4분기의 17%에 비해서는 다소낮아진 것으로 같은 기간중 소비자물가 상승율(6.3%)을 감안한 실질소득은 7.3%가 증가된 것.		
월평균 가계지출	877,800원	1,008,600 (91년 같은 기간에 비해 14.9% 증가)
월평균 가계 지출중 소비지출은 90만1천4백원으로 13%증가에 그쳤으나 세금 및 이자지급 등 비 소비지출은 10만7천2백원으로 33.7%나 증가.		

가계소비 동향을 보면 3.4분기중 가처분 소득 (소득중 세금등 비소비지출을 빼고 남은 금액)은 1백29만9천원으로 작년 동기대비 12.7%증가에 그친 가운데 가처분소득중 소비지출의 비중인 평균소비성향은 69.4%로 1.4분기(74%)및 2.4분기 (72.4%)보다 낮아져 각 가정이 소득증가가 둔화된 만큼 씹씹이를 줄여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글마당

아이들아, 너희를 생각하며

김향진(부산 아기자람터)

아이들아, 너희를 생각하면
이루 말할 수 없는 눈물이 솟는다.
해맑게 웃는 너희에게
좀 더 따뜻한 세상을 나눠주고 싶은데
세상은 아름답게만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벅찬 곳으로 느껴지고
일순간
이렇게 힘없이 살아가는 모습이
너희 자지러질듯한 순수함에
상처를 주는 건 아닌지.
아이들아 그런 너희를 생각하면
한없이 미안하기만 하다.

아이들아 너희를 생각하면
새순이 솟듯 알 수 없는 즐거움이 퍼진다.
한순간도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오히려 주어지는 안락을 경계하고
너희와 너희 부모님을 생각하며
때로 삶이 핑계처럼 느껴져도
아이들아! 너희 그 어설픈 애교에서
살아 볼 기운이 난단다.

아이들아 너희를 생각하면
“농부아저씨 감사합니다. 공장에서 일하는..”
질러대는 너희 기도소리에
세상은 역시

싸워도 금새 화해하고 용서할 줄 알고
서로에게 입맞춰 줄 줄 아는
너희들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아이들이 너희를 생각하면
세상은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키워 나가듯
불의와 싸우고 소중한 것을 지켜나가는
힘찬 투쟁이란 생각이 든다.

**** 자라는 아이, 건강한 교사 *****
이번호부터 아동교육과 관련한 여러 내용을 단신 고정기사로 실습니다.

싸움이 잦은 어린이

지나가다 부딪혀도 싸움을 걸고, 줄 서 있는 곳에 끼어들면서 양보해 주지 않으면 싸움하고, 만들거나 그림 그리기에서 실패하면 옆의 친구 탓으로 돌리면서 공격적으로 싸우게 되고, 힘없고 약한 친구를 건드려서 싸움을 하는 등 타협적인 놀이가 잘 진행되지 않는 어린이이다.

원인으로는 먼저 열등감이 있는데 성인에게 꾸지람을 듣거나 친구들로부터 놀림을 받게 되면 난폭해진다. 예로 왼손잡이 아이가 그림을 서투르게 그렸을 때 친구들이 놀리면 다른 아이의 그림을 찢어버려서 싸움을 일으킨다. 다음으로 부모의 거부와 엄격한 부정적 태도로 나타나는데 부모가 비웃고 무시, 금지하는 등 거부적 태도를 취할 때 아동은 정서적으로 대단히 불안해 지며 거기서 받은 상처가 친구를 방해하고 비동종적이며 공격적인 태도를 가져오게 된다. 마지막으로 질투로 인한 공격적인 행동인데, 인의 불공평한 취급에서 기인한다.

이런 어린이 일수록 성인의 감정적 움직임에 민감하고 상처받기 쉽다. 교사는 재판적, 권위적 행동을 취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여유있는 태도가 요구된다.

열등감이 원인으로 나타나면 교사의 따뜻하고 여유있는 시선이 무엇보다 필요하고, 아동의 표현적 행위에 즉각 반응해서 야단하면 더욱 난폭하고 싸움을 자극하게 된다. 싸움이 전개되었을 때 싸운 동기를 이야기하고 잘못된 점을 어린이 스스로 인정할 기회를 마련해 준다. 교사의 성급한 판단으로 옳고 그름을 단정적으로 지적하거나 아동의 이야기를 중간에 끊거나 한 아동의 이야기에 특히 관심을 나타내는 태도는 피해야 한다. 또한 동극, 인형극을 이용하여 공격당하는 어린이의 기분을 모두에게 이해시키고 이런 과정을 통하여 아동을 자연스럽게 비강제적 방법으로 잘못을 마음속으로 인정할 수 있게 한다.

(구로 문제행동사례집 중에서)

소식과 소식

연합회 소식

< 본 회 보육위원 모임 열려 >

지난 2월 15일, 22일 양일간에 걸쳐서 각 시도에 참여하고있는 보육위원들이 모여서 서로의 상황을 점검하고 보육위원의 할일에 대하여 공동논의하였다. 모인 사람은 중앙보육위원 김경태, 서울보육위원 최현숙, 부천 최순옥, 인천 이명숙, 안산 이은애 시보육

위원 등이다. 회의의 내용은 먼저 각 곳의 보육위원회의 상황을 나누고 보육위원회의 활동을 강화하기위한 제반논의를 하였다. 다음 모임은 중앙보육위원회가 열린 직후에 다시 하기로 하였다.

< 사회복지예산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 모임에 참여 >

지난 3월 4일 본회 사무실에서 집행모임을 가졌다. 안건으로는 먼저 정책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각 단체로부터 추천된 사람을 중심으로 인선이 있었고 활동으로는 3월말까지 단체의 요구내용을 수렴하여 정책위원회에서 작성된 사회복지정책에 관하여 '새정부에

바란다'의 기고문을 정부와 국회에 보내기로 하였다. 그리고 올해 사업에서 각 단체들이 법개정작업을 함에 있어서 개별 법개정작업은 각기 하기로 하고 이후 사대위차원에서 법안 자료집을 발간하기로 하였다. 다음모임은 추후 연락할 예정이다.

사람들

** 사무국

지난 1991년부터 사무국에서 아동교육간사로 열심히 활동해오신 박성연씨가 그만 두고 교육연구부 활동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후임에는 동부지역 오손도손에기방에서 3년동안 활동하시고 아동교육연구부원으로 활동하시던 오윤정씨가 선임되었습니다.

또 중부지역 해송아기둥지에서 일하

셨던 변미양씨가 재정간사로 새로이 활동을 시작하십니다.

** 중부지역

:해송 아기둥지에 박경아씨가 새로이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새로이 활동을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지탁연 전 가족의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우리들의 목소리

소백산을 찾아서

김선자(북부 동근나라 어린이방)

소백산맥의 줄기 중 충청북도와 경상북도 경계에 위치한 소백산은 '녹슬은 해방구'란 소설의 무대가 될 만큼 웅장한 산림과 긴 능선을 가진 산이다. 5월의 철쭉제, 여름의 푸른 초원, 겨울의 하얀 산호초같은 설화로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는 산이기도 하다.

청량리 역에서 중앙선을 타고 풍기역에서 하차(소요시간은 3시간 20분, 요금 3,300원)한 후 풍기에서 일박하고 시외버스로 회방사에서 내리면 산행이 시작된다. 열차가 어려울 경우 동서울터미널에서 고속버스를 이용하면 되고, 숙박은 숙박할 민박촌이 따로 없기 때문에 풍기의 여관에서 일박 (숙박비 15,000원)하는 것이 좋다.

등산로가 네군데 정도 되긴 하지만 소백산의 멋을 한껏 느낄 수 있는 회방사-제2연화봉-제1연화봉-비로봉 코스를 소개한다.

회방사에서 제2연화봉까지는 깔딱고개를 넘어야 하기 때문에 좀 힘이 들지만 깔딱고개를 넘어 제2연화봉서부터는 완만한 능선과 탁 트인 풍경으로 이어져 거리는 멀지만 힘든 줄 모르게 정상에 오르게 된다. 정상인 비로봉은 거센 바람때문에 휘어져 자라는 우리나라에서 몇 안되는 주목군락이 있고 너른 초원으로 여느산과는 다른 느낌을 갖게 한다. 하산의 경우 비로사쪽, 죽령쪽 회방사로 다시 내려오는 것이

좋다. 왕복거리는 총 12km, 왕복시간은 약 5시간.

소백산은 완만한 능선이라 등반하기는 쉽지만 우리나라에서 열손가락안에 드는 높은 산(해발 1439m)이며능선부터는 바람이 심하기 때문에 사계절 언제 가든 바람과 기후변화에 신경을 써야 한다. 특히 소백산의 설화를 보고자 할 때는 방한에 각별한 주의를 해야 한다.

늘 탁아일선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잠깐씩 짬을 내어 우리의 땅과 자연을 벗합시다.



(같이 일하는 박경숙선생과 함께 소백산 정상갈림길에서,오른쪽이 필자)

내가 돌보는 아이들,
그리고 그 부모들

박경자(구로 튼튼이 어린이 방)

"아이를 놀이방으로 보내세요"

"아니! 내자식 내가 알아서 하는데 무슨 상관이야, 다 필요없어요.가요가!!!"

2주전 내가 겪었던 대화의 한토막이다. 아이 엄마가 아침 일찍 놀이방에 전화를 했다.

"아이 아빠가 아이를 다 죽이고 자기도 죽어버리면 그만이라고 했어요. 아이들이 무사한지 가서 좀 봐주세요."

다급하게 얘기하는 엄마는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일주일전, 아침에 남편과 크게 싸우고 나서 더이상은 함께 살 수 없다며 집을 나가버린 엄마가 걸어온 전화였다. 마음이 급해진 나는 놀이방을 다른 선생님께 맡기고, 아이들 집에 가보니,방문은 잠겨 있었고 혹시나 하면서 창문을 밀어보니 열렸다. 방안에는 아이아빠가 먹지 못한 다던 술를 마시고 방안 가득 토한 채 누워 있었고 아이들은 구석에 붙어 들이서 마주보며 앉아 있었다. 너무 안스러운 마음에 아이들 보고 문을 열고 나오라고 했지만, 아이들은 아빠가 나가지 말라고 했다고 나오지 않았다.

결국 아빠에게 한마디 했던 것이 아빠를 화나게 만들고 말았던 것이다.그날로 엄마는 집으로 돌아왔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다시 생활이 시작되었다.

난 이 경험을 통해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었다. 특히,내가 하고 있는 일

(어린이집 교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가,남의 부부싸움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지만,난 그때 너무 다급하고 안타까운 상황을 지켜보면서도 아무런 일도 해낼 수 없다는 무력감을 절감했다.

"내 자식을 죽이든 살리든 아무 상관관하지 말라"던 그 아빠의 말은 무엇을 뜻하는가.탁아를 매개로 하여 올바른 교육을 통해 참인간을 키워내고 일하는 엄마의 주체성을 조금이라도 담보해 내려는 아주 기본적인 생각은 그 어디에도 없었다.두손 두발을 놓고 지켜보기만 할뿐,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가다릴 수 밖에 없었다.

난 이 일을 통해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 회의를 갖게 되었다. 탁아를 시작하고 나서 처음으로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재인식을 하게 된 것이다.난 지금 무엇을 위해 무엇을 하려하고 있는가?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을 난 아직 찾지 못하고 있다.

탁아부(父)로 가정방문간 날

최 홍국(인천 세쌍둥이 탁아소)

"아,사내놈이 무슨 할 짓(?)이 없어서 애기 지저귀나 치우고 있냐?"

"정신 나갔냐?"

인격이 매도되고 보육사업이 짓거리(?)로 전락하는 순간을 수없이 맞으며 탁아에 입문한지 1년 5개월.

맨처음 이 세쌍둥이 탁아소에 오게 된 것은 1991년 10월 개원을 앞두고 환경구성 등 준비(개원)때문에 손이 모자라 도움을 요청받고 자원봉사

를 오면서부터다.

처음에는 아이들과 만나는 막연한 기쁨속에서 일을 선택했으나 탁아소에 정식교사로 일하게 되면서부터 탁아라는 여성고유의 영역(?)에 들어선 이방인과 같은 어색함과 제대로 아이들을 볼 수 있겠는가? 라는 주위의 호기심 어린 눈들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탁아모(母)가 아닌 탁아부(父)로써 자리매김을 한 지 1년 6개월을 맞이하는 요즈음은 가사노동에서 남녀가 분담을 해야 하듯이 탁아소내에서도 남자손이 필요하고 실제로도 역할분담이 되어가고 있다.

주위의 동료교사 역시 같은 공동체적 동지로서 인식하고 많은 배려를 해주어 초창기와 같은 어려움은 많이 없어졌다.

또한 내가 몸담고 있는 세쌍둥이 탁아소는 주위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고 있고 환경 또한 열악한 편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열악한 환경속에서 투철한 사명감과 자기 헌신으로 일하는 다른 비영리 민간탁아소의 동료교사들에게 미안할 따름이다.

초창기 몇번이나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았으나, 그럴때마다 계속적인 동력이 되었던 것은 가정방문이였다.

지금은 시골로 이사간 형기네의 가정방문은 나에게 있어서는 신선한 충격이었다. 아빠는 생산직 노동자고 엄마는 봉제공(미싱사)이었다. 노동의 신성함과 건강한 생활을 노력하는 형기네 아빠, 엄마의 모습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형기(당시 6개월)를 건강하게 돌보는 것이라 생각하였고 지금도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

정을 생각하게 된다.

서두에서 비쳤듯이 내가 탁아소에 오게 된것은 아이를 만나는 기쁨 때문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사회적으로 가치절하된 상태에서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있는 우리의 어머니들이 한 인간으로서 구체적 삶을 개척해 나갈 수 있어야 함을 알았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 어머니들의 건강한 생산현장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사회가 육아를 책임지고 키워내야 함도 알았다.

이러한 것들이 수용되지 못하는 현실속에서 일하는 용기있는 어머니들의 힘이 되고 어떻게 아이들을 건강하게 보살필 것인지는 탁아현장에서 내내 고민해야 할 과제인 듯 싶다. 오늘 아침도 아가의 뺨을 부비며 힘겹게 직장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엄마들을 보며 내가 맡은 아이들만이라도 건강하게 돌보는 것이 최선을 다하는 것이리라 거듭 마음을 다져본다.

우리 아이들의 나라를 위하여

김현선 (대구 달구벌 탁아소)

달구벌 탁아소는 달구벌 민중교회에서 주민선교사업의 일환으로 대구의 침산 2동 빈민지역에서 7년째 운영해온 탁아소이다. 7년이라는 짧은 시간은 시간을 지나오면서 지역주민들에게 신뢰감을 주며 뿌리내려 왔었다. 그러나 작년부터 교회내 민주적운영 등 교회문제가 심화되면서 탁아소까지 문제가 확대되기 시작했다. 탁아소 운영에 권한이 없다고 하는 교회 책임자와의 갈등속에서 지난 한해를 보냈다. 그러

한과정을 겪으면서 깨달은 것은 탁아소는 어느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며, 탁아소 운영의 주체는 자모들, 자원봉사자들과 실무자들이 되어야 하며 후원자들은 이를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구조에 참여해야 할 것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탁아소는 어느 개인이 하는 개인사업이 아니며, 선진적인 탁아활동가와 함께 참여하는 자원봉사자, 지원하는 후원자들에 의해 기혼여성노동자들의 일할 권리와 우리네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며 교육받을 수 있는 권

리를 이루어 나가야 할 사회적인 공간이며 사회적으로 책임져 나가야 할 사업이다.

지금 달구벌 탁아소는 예전의 공간에서 나와 조그만 공간을 얻어 9명의 재롱둥이들과 20여명의 공부방 학생들이 작은 공간에서 부딪히며 힘들게 지내고 있다. 그러나 우리 힘들지만은 않다. 우리 아이들의 나라는 하늘과 땅이 하나로 되어 아름다운 삶을 사는 한울 나라임을 믿기 때문이다.

‘ 함께 가는 길 ’에 실을 원고를 모집합니다.

창작글을 실는 글마당에,
탁아소내에서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 일어났던 일들을 적는 탁아소 별곡,
다양한 생각과 솔직한 느낌을 적는 우리들의 목소리란 등,
독후감부터 감상문까지..

청탁을 기다리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매월 5일까지 본 회 사무국 편집담당자 앞으로 보내 주시면 가능한 모두 실어드립니다.

전국에 있는 지탁연 가족 여러분의 성의있는 참여와 애독을 부탁드립니다.

지탁연 목록시장

판	보육프로그램 10권, 4만원	93보육사업 지침, 3천원	국악동요테잎 세트, 7천원	『우리아이들의 육아현실과 미래 (한울)』, 3천5백원
매	『일하며 키우며(백산서당)』 시중 5천원, 공급가 4천원		『탁아교사를 위한 교육자료집 - 제1부 아동교육(지탁연)』, 5천원	
	수.과학 활동자료집 2천5백원	『탁아자원활동이란』 1천원	울릉도오징어 20마리, 2만5천원 새터어린이집 (02-867-8698)	
구 함	사무실에 책자와 간행물 등을 쉽게 볼 수 있도록 책꽂이(게시대)를 구함. 탁아소에서 혹시 안쓰시는 것이 있으면 사무국으로 연락 바람.			
알 림	< 아동관 토론회 > 일시: 3월 17일 (수) 오후 6시 장소: 본회 사무실 주제: 노동과 교육 여러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석을 바랍니다.		< 세상둥이 탁아소이전기금 마련을 위한 노.찾.사 공연 > 3월 19일, 20일 오후 6시, 인천인하대 강당. 21일(일) 오후 3시, 6시 인천 시민회관 "어린꽃들 별되어.." 일반 7천원, 15명 이상 단체 5천원	
	달력 판매 대금을 속히 송금 또는 직접내 주시기 바람 온라인 계좌: 304-08-252919 (상업은행, 수취인 최선희)			
	방앗간사업기금 마련을 위한 회원들의 애정 어린 기부금을 받습니다. 각 지역위원회 대표님께 내주시기 바랍니다.	세쌍둥이 추모제 3월 28일 (일) 오후 3시 인천 부평1동 성당에서	영유아보육법개정을 위한 공청회(가칭) 일시, 장소 미정이나 3월말에서 4월초에 있을 예정입니다.	
	본회 재정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어온 방앗간이 「우리네」라는 이름을 달고 가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우선 포장감을 만들어 팔고 있습니다. 10장들이 1세트가 1천원, 품질 매우 좋음.			

편집부에서

* '함께 가는 길'은 올해에도 변함없이 여러분곁에 찾아갑니다.

지난 2월 12일에 있었던 「확대지대의 합식」에서 그동안 소식지가 처음에 의도하였던 목적들, 즉 지역과 중앙활동에 대한 정보의 신속한 전달, 활동과 사업내용에 대한 교육과 선전 및 지침의 공유, 지탁연 가족들간의 끈끈한 애정을 밑받침으로 하는 조직력강화등에 일조한 면이 평가되었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사무국의 일손을 놓고 보았을 때 매월 발행되는 '함께 가는 길'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발간시기에 있어 격월발간과 매월발간이, 형태에 있어 신문과 책자의 형태가, 내용면에서는 소식위주의 간단한 정보공급과 기획, 특집, 아동교육 등의 교육내용이 첨가되는 약간의 무게를 실은 종합지가 논의되었으며 이에 대한 최종판단을 편집부에서 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지난 2월 21일(일) 편집부회의를 하여 앞으로의 '함께 가는 길' 발행에 대하여 이야기하였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약간(?)의 무리가 있다하더라도 그간의 '함께 가는 길'의 형태와 내용을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편집부에서는 편집부원의 보강과 편집부회의의 정례화, 부원들 간의 효율적인 역할분담, 지역 통신원들의 적극적인 역할추구 등을 기반으로 하는 가운데 최대한으로 무리를 줄여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올해의 개정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선전과 교양의 필요성이 극대화되어가는 시점에서 더욱 '함께 가는 길'역할의 중요함을 인식하였기 때문입니다.

부실한 내용과 편집에도 불구하고 '함께 가는 길'에 보내주신 지탁연 가족의 열렬한 성원과 애정에 감사드리며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앞으로의 소식지는 이렇게 변합니다.

'함께 가는 길'발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군살을 빼기로 하여 '문화단신'란을 없애고 읽어볼만한 '새책소개'란으로 바꾸며, 아동교육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고정란을 신설합니다.

'만나보았습니다'란을 내부와 외부로 대상을 넓히고 심층적으로 만나 들어갈 것이며, 올해의 기획기사로 여성단체연합의 활동과 중점사업소개, 탁아소내 복지상황에 대한 고찰, 사회복지운동에 대한 소개, 지방자치제도의 실제 이해등을 준비할 것입니다. 또한 매 시기의 특집기사들도 준비할 것입니다.

* 편집부원을 모집합니다.
소식지를 함께 만들 분이 필요합니다. 지탁연 가족이면 누구나.
* 지역의 통신원을 뽑아주세요.
부지런히 지역소식을 전달해줄 분

*지난 1,2월 합본호를 보고 말씀해 주신것에 감사드립니다.

뒷표지에 실은 수련회 전체기념촬영 사진을 모두들 좋았다고 하셨는데 아무래도 자신들의 흔적이 있는 것에 즐거워하고 관심있어 한다고 느꼈습니다. 사진상태가 조금만 좋았다면 뒷표지를 따로 떼어내어 사진첩에 넣고 항상 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특집2로 마련한 지탁연가족 앙케이트(지방편)는 전체적으로 편집이 엉성하게 되었다는 지적이 있었으며,광주 지역 몇 분의 사진을 편집자의 실수로 실지못함도 지적하셨습니다. 광주지역 선생님들께 사과 말씀드립니다.

창작글을 실는 글마당란에 선빈인

‘시인 기형도는 죽고’의 경우 기형도가 누구인지에 대한 언급이 있었으면 한다는 애교섞인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지역위원회 소식의 경우 내용의 구분과 전달의 모호함이 있으며,현장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는 지역 대표자회의에 제출된 보고서를 참조하여 실기 때문인데 지역통신원들의 활동을 통해서만이 극복되리라 여겨집니다.

* 이번호 ‘만나보았습니다’, ‘탁아소 별곡’과 지역위원회 및 각 분과 소식을 실지 못함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봄이 시작되는 3월이 되니까 여기저기서 결혼한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한때는 하고 싶지 않은 일 중에 하나가 결혼이었는데 이제는 생각이 조금씩 바뀌어져간다.건강한 사랑을 찾아서, 일에만 매몰되지 않게 작은 땅이지만 아직 디더보지 못한 곳이 많은 우리 땅을 헤매고 싶다.

정말 봄인가 보다.내가 이런 생각을 하다니... (애용).....

* 이번 호는 함께 가는 길의 앞으로의 발간방향을 고민하는 가운데 시일이 너무 지났다. 적은 인원으로 하다보니 많은 무리가 따르는 것이다. 하지만 그래도 함께 가는 길을 애독하는 지탁연 가족을 생각하면 더욱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다. (회연)

* 새봄이 돌아왔는데 전혀 새로운 느낌이 들지 않는데 그건 왜일까? 처음의 의욕과는 다르게 점차 함께 가는 길이 부담이 되고.. 밤늦게까지 일하는 편집부와 함께 있어줬던 소영언니께 감사드리며 (나의 짜증을 다 받아주었으니) 이번호의 부실함을 덮고 다음호를 기약한다. (정은)

펴낸 곳: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구로구 구로5동 41번지 16호

02) 838-3296~7

펴낸 이 : 최현숙

묶은 이 : 정희연, 이해용, 서정은

펴낸 날 : 1993년 3월 13일